

# 독립운동가 양한묵 선생 애국정신 기린다

## 해남군, 고향 옥천면에 '역사체험 마을' 내년까지 조성

해남출신 독립운동가 지강 양한묵(1862~1919)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독립운동 역사체험 마을이 고향에 조성된다.

해남군은 2013년 옥천면 영신마을에 자리한 생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 사적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토지 매입중이다.

생가터가 있는 옥천면 영신마을에는 선생이 어린시절 공부했던 서당 '소심재'와 사당인 '덕촌사', '지강 양

한묵 순국비'(사진)가 세워져 있다.

군은 지강 선생이 19세까지 산 생가의 안채와 별채, 사랑채를 초가집으로 복원하고, 현재 남아있는 우물과 장독대, 감나무 등은 원형 보존한다. 소심재, 덕촌사, 순국비가 밀집한 마을 중심에 후손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 독립운동 체험관을 만든다.

군은 지강선생이 어린 시절 꿈을 키우던 곳으로 알려진 비둘기 바위, 송림 등의 자연자원을 탐방 루트로 개발,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역사체험마을로 조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강 양한묵 선생은 3·1운동 당시 호남 유일의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1919년 5월 24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으로 옥중 순국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봄기운으로 '쑥쑥' 밭추 주산지인 해남에서 봄배추 모종 육묘가 한창이다. 배추 모종은 지난 2월 중순 파종후 30~35일간 온실에서 키운뒤 4월초까지 밭에 옮겨 심어 6월말~7월초에 수확하게 된다.

배추 주산지인 해남에서 봄배추 모종 육묘가 한창이다. 배추 모종은 지난 2월 중순 파종후 30~35일간 온실에서 키운뒤 4월초까지 밭에 옮겨 심어 6월말~7월초에 수확하게 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무안군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 올 19억7000만원 투입

무안군이 올해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 추진한다.

무안군은 올해 19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육시설 7개소, 유치원 56개소, 초등학교 18개소, 중학교 18개소, 고등학교 9개소 등 총 108개소 1만113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4개교가 신규 개교함에 따라 500명의 학생이 늘고 예산지원도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군은 3월부터 12월까지 보육시설은 연간 250일,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각 180일씩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등대유기 영농조합법인과

녹색유통센터 2개소를 선정, 생산농가와 품목별 계약 재배 등을 통해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했다. 특히 군은 공급과정에서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공급한 업체는 납품중단은 물론 3년간 공급대상 업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농산물 납품대금 지연과 저품질 농산물 공급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다음 연도부터 공급대상 학교 수를 10%씩 줄여나가고, 민원발생이 5회일 때는 공급업체 지정취소 등 패널티를 주기로 하는 등 학교급식 공급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학교급식 음식 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관광객 10명 중 6명 "목포 음식값 비싸다"

## 市, 10~20% 자율인하 추진

목포시가 관광객 800만명 유치와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음식값 인하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목포시는 최근 음식가격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광객 10명 가운데 6명이 '비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타 지역과 음식값 비교에서도 일식 정식의 경우 목포·여수는 비슷하지만 광주에 비해 10% 정도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횡집·한정식·일식집 등에 대해 음식값 자율인하를 중점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중점관리업소 100여개소를 선정해 집중 관리해 나

가기로 했다.

목포시는 음식값 인하여 자율 참여한 업소에 대해 ▲요금자율인하업소 스티커 부착 ▲목포시 공식행사시 우선 이용 ▲관광마케팅 홍보자료를 통한 업소홍보 및 관광객 이용알선 ▲위생용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타지역의 음식값을 감안할 때 현재 음식가격의 10~20% 정도는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3월 말까지 적정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4월부터는 음식점 단체와 함께 자율인하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

## 목포항만청, 하도급업체 보호 계약심사위 운영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의현)은 관내 발주공사의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심사위원회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부적정 시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목포 항만청장을 위원장으로 청내 과장급이상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연구위원, 박사, 교수, 기술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목포 항만청은 올해 목포신항 자동차부두 축조공사 등 항만건설에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만공사를 시

행하고 있다. 최의현 목포 항만청장은 "앞으로 공사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 하도급 심사를 강화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건설 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목포대, 베트남 하노이 공대와 학술 교류

목포대학교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 공대(총장 응웬 즈롱장)와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체결로 목포대와 하노이 공대는 ▲학부·대학원 학생 교환 ▲공동 연구, 공동 세미나 개

최 ▲교직원 상호 교류 ▲학술 서적 및 출판물 상호 교환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지난 1956년 베트남 최초의 국립 공과대학으로 설립된 베트남 하노이 공대는 현재 1500여명의

교원을 보유한 베트남의 과학기술 분야 최고 명문대학이다.

이 대학 졸업생들은 베트남에서 장·차관, 저명한 과학기술자, 성공적인 기업인 등으로 활약하며 과학기술 및 사회경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전 북

## 익산역 개통 100년, 시민 화합의 장으로

### 6일 '과거 100년 미래 100년'

### 옛사건 등 문화 행사 개최

호남 철도교통의 분기점 중 하나인 익산역(옛 이리역·사진)이 오는 6일 개통 100년을 맞는다. 익산역은 지난 1912년 3월 6일 호남선 강경~익산(27.2km) 구간과 군산선(24.7km)이 동시 개통과 함께 문을 열었다. 이때 목천포 북쪽 십리 10여 가구의 한적한 시골마을에 불꽃처럼 '습리'가 '이리'(裡里·속마을)로 바뀌었다.

익산시와 익산문화재단은 익산역 개통 100년을 맞아 '과거 100년, 미래 100년'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친다. 개통 100년을 기념하는 '옛사건전'을 익산역 지하보도에 전시하며, '시민의 날'인 5월 10일에는 익산역 광장에서 '축하음악회'를 개최한다.

또 4월 25일과 5월 12일에는 원광대에서 '익산역 개통 100년, 이후 100년'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포럼도 열린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은 익산문화재단의 기획을 통해 '익산, 미래 10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연중 진행되며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됐다"며 "익산역 개통 100년을 문화행사로 풀어내 시민이 화합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역은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이 지나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일제시대에는 수탈을 위한 운송수

단으로 역(驛)이 이용됐으며 지난 1977년 11월 11일 '이리역 폭파사건' 등을 겪은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978년 11월 현 역사가 신축됐으며, 지난 1995년 9월 이리시와 익산군이 '익산시'로 통합되며 '익산역'으로 역명이 바뀌었다. 현재 오는 2014년 KTX 호남선 개통을 앞두고 새만금 관련 교통 물류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선상역사 건립이 한창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뉴스 브리핑

### 전북도, 정부 공모 '재활 승마장' 유치

전북도가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재활승마장' 유치에 성공했다.

재활승마장 사업은 국비 6억 5000만원 등 총 13억원이며, 전국적으로 65개소가 신청했다. 사업 대상자인 전주 기전대학은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일원 3670㎡에 재활승마 전용 실내마

장과 마방 및 퇴비사, 실외마장·원형마장, 기타 부속시설 등 재활승마장 시설을 설치해 오는 12월 말 개장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활승마장 사업 유치를 계기로 승마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익산 유스호스텔 '이리온' 개소 본격 운영

익산 유스호스텔 '이리온'이 지난 28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리온'은 익산시 마한로 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612㎡, 건축면적 3786㎡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호텔용 15실, 유스룸 26실을 갖춰 250여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 부대시

설로는 대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야외공연장, 식당, 자가취사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3층 객실에는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살려 무왕, 서동, 선화, 보석 등으로 호텔식 토크와 비즈니스 토크를 이미지화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김제 산림병해충 방제단 포도 꽃매미 방제

김제시가 포도나무 등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꽃매미 초기 방제에 나섰다. 김제시는 산림병해충 방제단등 9명을 투입, 백구·용지 포도단지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알집제거에 주력하고 있다.

꽃매미는 알 상태로 월동하고 4월부터 부화하며, 7월 하순~8

월 중순께에 성충이 되면 포도나무 즙액을 빨아 고사시키고, 그를 음병을 유발해 상품성을 저하시킨다. 김제시 관계자는 "초기 방제와 포도밭 주변 10ha에 예찰활동을 지속적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 순창군 복흥 서지마을에 농산물 가공시설 준공

순창군이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복흥면 서지마을 농산물 가공시설이 지난 28일 준공됐다. 군은 지난해 국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등 총 3억원을 들여 200㎡ 규모의 농산물 가공시설과, 33㎡

의 저온 저장고를 신축했다. 또 오디·복분자·오미자·쑥 가공시설과 상품 제작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브랜드 및 포장재, 선진지 견학, 홈페이지 구축 등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도 추진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고창장학재단, 서울학숙 개관

(재)고창군 장학재단(이사장 이강수)은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고창장학숙 개관식을 가졌다.

고창군 장학재단은 28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당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인 6층 30실 규모의 남현동 원룸 빌딩을 매입했다. 장학숙 시설은 2인 1실 60명 정원으로 운영되

고, 각 호실마다 화장실과 샤워기, 취사 가능한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침대, 책상, 옷장을 갖췄다.

고창군 장학재단은 가정형편과 학업성적에 따라 최종 입학생 48명을 선발, 월 15만원의 저렴한 입사비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김제경찰 '실버자치경찰대' 발대식

김제경찰서는 지난 28일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이상주 서장과 이진식 김제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구성된 '제2기 실버자치경찰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김제 실버자치경찰대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을 치안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민·경 협력방안을 공

고히 하고,이를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중심 치안'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상주 서장은 "제2기 실버자치경찰대는 어린이보호구역 순찰과 함께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에 경찰과 힘을 모아 편안한 김제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 전북경찰, 대가성 입증

도내 여행사 대표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북경찰청은 여행사 대표와 전 도의회의장 등 정치인, 공무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28일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S여행사 대표 유모(53)씨와 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청은 유씨로부터 현금과 양주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씨

등 정치인 2명과 공무원 9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가 가벼운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북도의회 의장 출신인 김모씨는 지난 2010년 12월 유씨로부터 해당 공표여행 경비를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88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씨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등 유씨의

### '여행사 로비' 前 도의회의장 등 13명 불구속

사업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정치인 김모씨는 지난 2009년 7월 해외여행 경비로 100만원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183만원을 받았고, 도청 4급 공무원은 고급양주 등 4차례에 걸쳐 545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공무원들의 기관별 소속을 보면 전북도청 5명, 전북도교육청 4명이며 이들 중 4급 이상이 7명이었다. 경찰은 100만원 이상의 대가성 뇌물이 입증되면 불구속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